

최근 ERP 제품 개발 동향과 오라클의 EnterpriseOne

글 | 윤태근 (주)윌러스 이사 tyoon@wilus.com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은 주로 제조 중심의 개별기업 내부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르러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기업간 거래관리, 고객관계관리, 인터넷을 활용한 협업적 e-비즈니스 등의 요구가 대두되어,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의 개념으로 확장형 ERP(또는 ERP-II) 등의 이름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보다 유연하고 편리한 애플리케이션 통합 및 상호운용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지원하는 '플러그애플레이형' 애플리케이션의 포용, 분석적 애플리케이션의 임베딩, 지식관리, 워크플로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등의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있다. ERP 솔루션 벤더들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다.

오라클의 EnterpriseOne 솔루션의 역사

EnterpriseOne은 원래 J.D. Edwards사가 1974년부터 공급해 오던 제품으로, 주로 제조 및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 시장에서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던 제품이다.

산업별로 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학, 음식료를 포함하는 일반소비재(CPG), 금속가공, 시멘트 등의 제조 산업, 에너지, 제지, 유틸리티 등의 자산집약적 산업, 건설·엔지니어링·건축 및 전문서비스업 등의 프로젝트성 비즈니스 산업에서 강세를 보여 왔다.

국내에서는 1995년 이전에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 등에서 부분적으로 구축했으며, 1995년 두산정보통신을 통하여 두산그룹의 두산씨그램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 솔루션이 도입되었고, 이어 두산, 삼양사, 조선내화, 현대약품 등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다국적기업들 중에도 제약·의료기,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전자·하이테크, 시멘트, 의류·패션 등의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국내 법인에서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 70개 정도의 기업에서 이 솔루션을 운영 중에 있다.

제품 구성 및 특징

EnterpriseOne 솔루션의 세부 구성 내용 중 Business Intelligence and Technology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스템 운영관리 도구, 애플리케이션 및 리포트 개발 도구, 엔터프라이즈 포털 및 애플리케이션 통합지원 도구 등의 기술기반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 그리고 프로세스 설계 및 관리 도구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근의 ERP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급(구매)관리, 프로젝트관리, 공급사슬계획, 제조, 로지스틱스, 고객주문관리, 인적자산관리, 재무관리, 고객관계관리, 자산수명주기관리 등의 솔루션 군이 포함되어 있다.

특징은 각 솔루션별로 주요 표적산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관계관리의 경우는 제조·유통산업에 적합한 판매 과정 및 판매 후 고객관계관리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품의 최신 버전은 8.11인데, 8.10 및 8.11 버전의 기능 및 특장점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 및 추가가 이루어졌다.

그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수요기반 제조 운영 솔루션, RFID 등의 최신 요구 기술 지원 솔루션의 추가와 앞서 언급한 제조·유통 기업용으로 특화된 CRM 기능의 내장, 사베인스옥슬리법 등의 법규상 요구에 대응하는 솔루션 등을 들 수 있다.

〈표〉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략

- Build a great next release for each product line
- Provide evolutionary functional and technical improvements
- Functional
 - Dominate with an industry focus, e.g. Retek
 - Combine the best of the best
- Technical
 - Leverage technology innovation
 - Deliver an open, standards-based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 제품 개발 전략 기본 방향

오라클이 발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제품 개발 전략은 첫째, 각 제품 라인에 있어서 우수한 다음 릴리스를 개발하여 내놓는다. 이것은 기존 고객들에게 기존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릴리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Fusion Project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둘째, 기능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화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떨리는 PeopleSoft의 인수와 최근 유통 산업 솔루션 전문업체인 Retek의 인수에서 보듯 표적산업 내에서는 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겠다는 전략과, 가지고 있거나 인수한 솔루션 가운데 최고의 것들을 함께 모으겠다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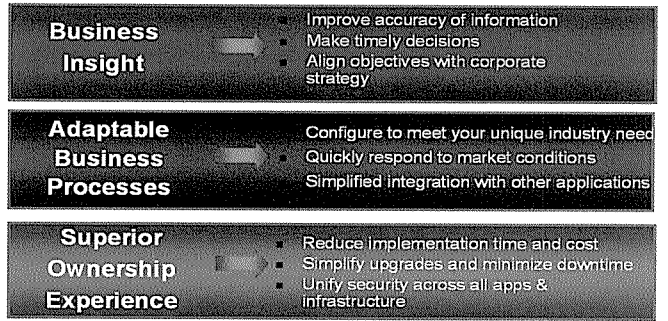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술 발전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개방적이며 표준을 기반으로 서비스기반아키텍처(Service-Oriented Architecture : SOA)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기반 아키텍처와 비즈니스 프로세스관리(BPM)는 이러한 기술전략의 핵심에 속하는 것으로서, 오라클은 이미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BPM 솔루션인 BPBM 및 각종 미들웨어를 바탕으로 기술 솔루션을 갖춘 유일한 솔루션 공급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제품 개발 전략을 통하여 오라클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 가치 또는 경쟁우위 요소는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통찰력의 제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 운영의 유연성, 사용자 경험의 극대화 등이다. 여기서 사용자 경험의 극대화란 애플리케이션 구축기간 및 비용의 절감, 업그레이드 작업의 간소화와 다운타임의 최소화,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에서의 보안관리의 일관화 등 고객 편의와 경제성 제고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Fusion Project

오라클은 지난 해 말 PeopleSoft를 인수한 후 보유했던 기

〈그림〉 제품 로드맵



존 자사의 ERP 솔루션인 E-Business Suite, 구 J.D. Edwards 제품인 EnterpriseOne 그리고 구 PeopleSoft 제품인 Enterprise 등 크게 세 개의 제품군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구체화한 Fusion Project 계획을 발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략과도 일부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세 개 제품군은 2013년도까지 계속 공식 지원을 제공하며, E-Business Suite, EnterpriseOne, Enterprise 솔루션 군 공히 이미 계획되었던 다음 버전을 계획에 따라 발표한다.

둘째, 앞서 밝힌 제품 개발 전략의 내용을 기반으로 세 개 제품군의 최장점만을 모은 통합 솔루션인 Fusion Suite를 개발하되, 2005년도에는 이들 세 개 제품군을 통합할 기반이 될 데이터 허브를, 2006년도부터는 개별 솔루션을 출시하고, 2008년도에 Fusion Suite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제품군 모두에 대하여 간편하게 Fusion Suite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Fusion Project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라클은 다양한 세부 작업을 정의하고 진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고객들에 주는 의미

J.D. Edwards 의 파트너로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EnterpriseOne 솔루션 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이 제품군에 대한 국내 유일한 공식 파트너로서 국내의 고객들을 지원해 온 월리스의 입장에서, 오라클의 제품 개발 전략 및 Fusion Project의 방향은 고객들의 이익을 생각할 때 매우 반갑고 고객의 기존 투자를 보호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환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EnterpriseOne이나 Enterprise 라인의 기존 고객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E-Business Suite 고객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들 세 개 제품군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애플리케이션들의 장점들을 모은 Fusion Suite을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708-7404) Users